

# 무등산 지키는 특수산악구조대 조난자 발생하면 어김없이 뜬다

지난 1월 첫 TF형태로 신설  
고지대·고고도 지역서도 구조  
산불 진화·재난취약지 점검도

90kg 남성 업고 700m 등반  
해맞이객 찾아 폭설 헤집고  
분실물 찾으러 다시 산으로  
“고맙다는 한 마디에 큰 보람”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이 늘면서 산악 안전사고도 급증해 ‘무등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특수구조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특수구조대는 국립공원의 날(3월 3일)을 앞두고 광주일보 취재진을 만나 안전한 무등산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내비쳤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무등산국립공원에서는 산악사고로 95건의 부상·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5건(사망1·부상4)에서 2022년 10건(사망1·부상9), 2023년 8건(부상), 2024년 7건(부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악사고의 경우 산세가 험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대원들의 구조작업은 항상 가시밭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2월 오후 8시께 무등산국립공원 상왕실에 “산행 중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위치를 잘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는 추위에 떨릴 떨고 있었다. 당시 기온은 영하8도였다.

혼자 산행하던 중 날이 어두워지자 급하게 하산하다 발이 걸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채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로 간신히 구조대에 연락한 것이다.

당시 상왕실에서 신고를 받은 김형욱(38) 무등산특수산악구조대원은 위치를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피구조자에게 “카카오톡 위치 보내기로 위치를 알려달라”고 침착하게 유도했고 무등산 중봉 용수봉 절벽 아래서 여성을 가까스로 찾아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다리는 골절되고 머리에는 피가 나고 있었으며 영하권 날씨에 저체온증 증상까지 보였다.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됐다면 자칫 생명이 위협했을 수도 있었다.

앞서 비가 많이 내렸던 2016년 여름, 무등산 용추폭포를 보러 간 남성이 이끼에 미끄러져 뼈가 튀어나오는 개방성 골절 상태로 무등산 상황



무등산특수산악구조대원이 지난달 18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하산하다 골절상을 입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무등산 특수산악구조대 제공>

실에 신고를 했다. 순찰을 돌다 신고를 접수한 김 대원은 중머리재에서 용추계곡으로 향했다. 남성을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선 남성을 업고 중머리재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상황. 김 대원은 90kg 거구 남성을 들쳐업고 700m가량을 올라 중머리재에 안전하게 옮겼다.

이처럼 산악사고가 증가세를 보이자 올해 1월 1일 무등산국립공원 특수구조대가 TF 형태로 북한산(2019년), 설악산(2024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신설됐다. 특수산악구조대는 고지대, 고고도 지역에서 구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산악구조대와 다르다.

무등산 특수구조대에는 총 8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상현(49) 대원은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하며 2018년 1월 1일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대설주의보가 내려 10cm 이상 눈이 쌓였던 이날 국립공원이 통제된 상황이었지만 피구조자는 청바지에 운동화만 신고 셋길로 산 정상까지 올랐다.

최 대원은 피구조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무작정 무등산 전역을 뒤지는 방법밖에 없었다. 1시간 넘게 눈발이 내리고 찾아다니던 결과 탈진·저체온증 증상의 피구조자를 발견했고 신고 3시간만에 무사히 하산시킬 수 있었다.

최 대원은 “구조대원들도 사람인지라 오랜시간 눈길을 다니며 발이 얼 것 같은 통증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조난자를 발견하게 되

면 안도의 한숨과 함께 힘든 것을 다 잊는다”고 웃어보였다.

신영환(48) 대원은 구조 후 조난자에 대한 초기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져 병원 치료 예후가 좋다는 소식을 접할 때나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 구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마주할 때 구조대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의 역할은 구조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등산 탐방로부터 셋길까지 최단거리 루트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은 무등산에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 등이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초동진화에 나선다.

암벽, 고지대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훈련도 쉽지 않다. 훈련 중 발딛꿈치를 암벽에 부딪혀 족저근막염을 겪기도 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구간 안전점검을 하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나무와 덩굴 등을 헤치고 무등산을 뛰어다니다 보면 온 몸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지는 일은 예사다. 추락 구조 이후 고맙다는 말보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이들도 있고, 극단적 선택, 사망사고 현장 등을 종종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

최 대원은 “산행 중 구조 복역을 입고 있는 대원들을 만나면 ‘예전에 조난 사고를 겪었는데 그때 도와주셔서 다시 산에 올 수 있었다. 안전 산행하겠다’며 감사를 표하는 등산객 분들이 많다”며 “안전한 탐방을 위해 언제라도 산을 뛰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일빌딩에 ‘제주항공 참사’ 마음회복센터 시, 개정안 입법예고...상담·재활 등 사회 재난 아픔 치유 공간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본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을 치료하기 위한 ‘마음회복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광주시는 27일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안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마음회복지원센터 신설 관련 행정기구, 정원·사무 조정 계획안을 담고 있다.

센터는 심리평가·상담, 치유·재활·회복 지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가족지역사회 연계

협조체계 구축, 재난 심리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가족은 물론 사회 재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이 만나 서로 치유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광주시는 센터 관리과(정원 4명)를 신설하고 관리과장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센터는 참사 당시 광주 합동분향소가 있었던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차려진다. 광주시는 정부에 예산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봄 재촉하는 비...3·1절 5~10mm 내린다

3·1절 연휴 광주·전남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봄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부터 광주·전남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이 오르고 비가 내리겠다”고 27일 예보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28일 새벽동안 5mm 내외의 적은 비가 내리겠다.

3월 1일 광주·전남에는 5~10mm의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인 2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해 4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오겠다.

광주·전남에 유입된 온난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상승하겠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낮 최고기온은 11~17도, 3월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낮 최고기온은 10~15도에 분포하겠다. 3·1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비가 그치겠으며, 기온은 평년기온(최저 영하4~4도·최고 6~11도)과 비슷하거나 2~4도 가량 낮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전남 경찰청 소속 5명 총경 승진

경찰청은 27일 광주경찰청 노광일 형사와 강력계장, 전남경찰청 박태준 형사와 강력계장 등 104명을 총경승진 임용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광주청에서는 노 강력계장 외에 문대열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계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이날 경무관 승진도 발표됐으나 광주·전남경찰청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다.

전남청에선 박 강력계장 외에도 이광현 범죄예방대응과 지역경찰계장, 김민주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이 총경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총 5명이 이름을 올려 지난해 7명보다는 무명 줄었다. 올해 총경 승진 인원은 지난해 총경 승진 인원 135명에서 약 23%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도 광주·전남이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청별 총경 승진자는 서울경찰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본청 22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외에도 경기남부청 7명, 부산청 6명, 인천·대구·경남청 각 4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은 각 2명과 3명에 그쳤다. /정병호 기자 jusbh@

## 금속노조 “GGM 사업자 부당노동행위” 고소

“단체 교섭 거부·현수막 철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노조)가 윤몽현 GGM대표이사를 비롯한 GGM 임직원 1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법원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GGM 사업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노조간부 징계추진, 노조 조할원 차별, 노조 조

합원 강제 전환 배치, 조합 현수막 무단 철거 등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가 어디 인지 알 수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장소와 시간 등을 이유로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며 노조 선전전에 노사상생안전실장 등이 몰려와 마이크를 파손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상생안전실장을 광주광산경찰에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용자가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노동3권을 인정하는 토대에서 조속히 중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